만물 생성의 의지

임성주와 삶과 학문

임성주(任聖周, 1711~1788)는 앞에서 이재의 문인을 간략히 소개할 때 언급했듯이 본관은 풍천(豐川)이고, 호는 녹문(鹿門)으로 문신이자 철학자·서예가이며 청풍 출신이다. 아우인 임정주(任靖周)·임경주(任敬周)와 함께 배웠다. 여류학자 윤지당(允摯堂)은 그의 누이이다. 기(氣)를 위주로 하는 학문을 완성하여 조선 성리학의 대가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힌다. 저서에는『녹문집』이 있다.

그는 1733년 과거에 급제하고 출사하였으나 1758년 공주의 녹문(鹿門)에 은거하였고, 그 뒤 또 출사했다가 다시 녹문에서 학문연구로 여생을 마쳤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그는 초년에는 스승의 학설을 따라 인물성동론을 주장하였으나, 중년 이후에는 기존의 학설을 비판하고, 자신의 기일원론적 이론에 따라 그것들을 재구성하여 자신의 학설을 세웠다고 한다.

이 글은 그렇게 사상이 전개되는 기본 구조를 간단히 탐색하려고 한다. 어떤 학술이나 예술이든 성숙하여 각자의 고유한 특징을 가지려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기만의 철학적 세계관이나 작품세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흔히 임성주의 철학을 유기론(唯氣論) 또는 기일원론(氣一元論)이라 일컫고 기 철학자로 분류한다. 사실 그 용어만 가지고 그 내막을 잘 알 수 없다. 같은 기 철학자라고 해도 후기의 최한기(崔漢綺, 1803~1877)의 철학과 같다고 말할 수도 없다. 하지만 적어도 그 용어상에서만 보면 만물의 근원인 일차적 존재는 기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니까 기를 떠나서 만물이 존재할 수 없고, 인사의 규범이나 가치 따위도 기로부터 연역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글은 기를 중심에 놓고 설명하려고 하며, 그 내용은『녹문집』의「녹려잡지(鹿廬雜識)」에 보인다.

저절로 그러한 것

'저절로 그러하다'라는 말에 해당하는 한자어는 '자연(自然)'이다. 이는 원래『노자』에 등장하는데, 우리가 영어 'nature'의 번역어로 일상에서 사용하는 자연과는 다르다. 그것은 도리어 천(天)이나 천지(天地)가 거기에 해당할 때가 많다.

그렇다면 무엇이 도대체 저절로 그러하단 말인가? 그는 그것을 '그러지 않을 수 없어 그러한 것(莫之然而然)'이라 표현하고 있다. 그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사물의 존재나 운동의 필연성을 말한다. 하지만 그 표현도 정확하지 않다. 가령 유리그릇을 던지면 깨지지 않을 수 없는데 그 깨지는 원인은 누군가 던졌기 때문이다. 얇은 유리그릇을 딱딱한 바닥에 던지면 깨진다는 사실은 필연성을 갖는데, 여기서 그 원인자는 던진 사람이다. 자연물의 존재와 생성의 원인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조물주로 일컫는 신이고, 다른 하나는 형이상학적 이치나 원리이고, 다른 하나는 물질이 갖는 자기 원인이다. 저자가 '그러지 않을 수 없어 그러하다'라는 필연성은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인데 그것이 무엇일까? 그는 여기서

"<u>저절로</u> 어떤 하나의 텅 비고 원만하고 풍성하고 커다란 사물이 있는데, 끝이 없고 넓어서 안과 밖과 나눠진 구분이 없고, 변두리도 없고 시작과 끝도 없다. 흘러 운행하여 그치지 않고 만물 낳음을 헤아릴 수 없으니, 그 몸체를 하늘이라 하고 원기(元氣)라 하고 호연지기(浩然之氣)라 하고 태허(太虛)라고 말한다(「이기심성(理氣心性)」)."

라고 말하여, 그 점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곧 강조한 인용문의 '저절로'라는 말에 주의해서 본다면 바로 자기 원인에 의하여 존재하는 기이다. 이 말이 아직 의심스럽다면 다음의 인용을 보라. 이전보다 훨씬 분명해질 것이다.

“그 기가 흘러 운행하여 그치지 않음을 도라 말하고 건(乾: 하늘)이라 부르며, 그 헤아릴 수 없음을 신(神)이라 부르고, 그것이 그러하지 않을 수 없어 그러한 것을 일컬어 명(命)과 하느님과 태극이라 부른다. 요약하면 저 텅 비고 원만하고 풍성하고 커다란 사물에 나아가 분별하여 이름을 세운 것이니, 그 실상은 하나이다. 그러지 않을 수 없어 그러한 것은 곧 이른바 스스로 그러한 것이다(「이기심성(理氣心性)」).”

인용문 특히 강조한 부분을 보면 그 필연성이란 ‘스스로 그러하다’라는 자연(自然)이란 말에서 보면, 기의 내재적 원인에 따라 운동하고 만물을 생성한다. 그래서 기가 있으면 사물의 형체가 있고 기는 형체 가운데에 관통하고 있으니, 형체의 운동과 사라짐과 자라남은 기가 하는 일이 아님이 없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형체 있는 물건은 모두 기의 범주 속에 포함되어, 기는 마치 아버지와 어머니, 임금과 신하를 말할 때처럼 상대가 없는 일차적 존재임을 천명하였다.

만물 생성의 의지

그렇다면 만물의 생성과 운동은 기에서 생겼으며, 기는 자기 원인에 따라 운동한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아무리 자기 원인에 따라 운동한다고 해도, 아무 목적과 방향도 없이 무질서하게 운동한다는 의문이 그것이고, 그 무질서가 질서 정연한 만물을 어떻게 생성했을지 의아하다.

그런데 현대 과학에서 빅뱅과 함께 우리 우주가 탄생한 일은 어떤 신이나 우주의 섭리와 같은 목적론적 방향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물질의 운동이 지구상의 생명을 창조해야 하는 어떤 의지에서 되었다고는 보지 않는다. 다양한 물질의 결합에 따른 우연성, 곧 물질 진화의 우연성에 무게를 싣는다.

그렇다면 임성주의 기의 운동도 그런 것일까? 만약 그렇지 않고 서구식 물질관과 다른 무엇이 있을까? 그는 여기서 기의 ‘생의(生意)’를 제시한다. 생의가 무엇인지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것의 술어로 제시하는 덕(德)과 원(元)과 천지의 마음(天地之心)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곧 생의란 기의 덕, 은유적으로 표현한 천지의 마음과 같은 말이다. 조선말 최한기는 그 헤아릴 수 없는 신(神)을 기의 덕으로 보았는데, 통하는 점이 있다.

그러니까 생의를 ‘만물을 생성하는 의지’라고 옮길 때, 인격체가 갖는 ‘의지’라는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단지 기의 덕을 의인화한 표현이라 이해하면 충분하다. 곧 기는 만물을 생성하는 덕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결과론적 생각이기는 하지만, 기가 만물을 생성한 것, 다시 말해 물질이 세계를 찬란하게 구성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어서, 그것을 역으로 생각해 그 기의 덕으로서 ‘생의’라고 함은 좋다. 최한기도 그런 뜻에서 기의 본성 가운데 하나를 ‘생기(生氣)’라고 보았는데, 기가 생물처럼 살아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운동하면서 만물을 생성하는 덕을 그렇게 표현했다. 아무튼 양자 모두 기가 죽어 있는 물질이 아니라는 점에서 서양의 물질관과 다르다. 서양 전통의 물질은 형상(形相)과 대비되는 질료, 창조주가 그의 머릿속에서 영혼이나 본성을 부여하기 이전의 죽은 재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만 현대 과학에 인정하는 물질 자체의 내재적 원인에 따라 운동하고 진화한다는 점은 도리어 생기(生氣)나 생의(生意)라고 말한 의도에 가깝다.

한편, 기는 조건에 맞지 않으면 사물을 생성하기는커녕 생성된 만물을 죽일 수도 있다. 이 또한 기의 운동이 그렇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의(生意)보다는 생기(生氣)라는 표현이 더 포괄적이고 물질의 일반 성격에 어울린다. 물질은 본질적으로 운동한다는 존재이다.

리와 기는 한 물건

그런데 문제가 되는 지점은 리와 기의 관계에 있다. 그것이 주희의 그것과 다르면, 그의 스승과 동료들의 관점에서 이탈하게 되고, 인물성동론의 입장과도 다르게 전개될 근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그는 과감하게 말한다.

"우주 사이에서 위아래를 관통하며 안팎도 없고 처음과 끝도 없이 널리 가득 찬 가운데, 많은 조화를 이루고 많은 인간과 만물을 낳은 것은 단지 하나의 기일 뿐이다. 여기에는 리(理)라는 글자를 다시 안배할 조그마한 틈도 없다(「이기심성(理氣心性)」)."

이처럼 그는 단지 그 기가 그와 같이 성대하고 그와 같이 작용할 수 있는 까닭은 어떤 것이 그렇게 되도록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그러해서 그런 것'에 지나지 않을 따름인데, 이 '원래 그러한 곳'에 대해서 성인이 이름을 붙여서 도라고 하고 리라고 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하였다. 다시 말해 리와 기가 두 사물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리(理) 자의 뜻은 '자연'이라는 두 글자로 표현되며, '당연'과 '소이연'이라는 용어도, '자연'이라는 데로 그 뜻이 모두 귀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 '자연'이라고 말하고 '당연'이라고 말하는 그것도 별도로 경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기의 측면에 나아가 말한 것일 뿐, 연(然) 자는 바로 기를 가리키고 자(自) 자와 당(當) 자는 그냥 갖다 붙여서 그 의미를 형용한 일에 지나지 않을 따름이라고 보고, 만약 이런 의미를 인식할 수만 있다면 기를 가리켜 리라고 한다고 해도 안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더 나아가 그는 주희의 "리와 기는 결단코 두 개의 물건이다."라는 말만을 믿고서 왕왕 리와 기라는 두 개의 물건이 진짜 있는 것으로 여기는 당시의 학풍을 슬픈 일이라고 한탄했다.

그렇다고 해도 애초 주희 성리학이 의도했던 천리나 인간의 도리로서 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마저도 기에 귀속되는가? 그는 그렇다고 보았다. 곧 만리(萬理)·만상(萬象)·오상(五常)·오행(五行)·건순(健順)·양의(兩儀)·태극(太極)·원기(元氣)라는 용어는 모두 기를 두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인의예지와 같은 것도 기의 그것이라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자식은 효도해야 하고 아버지는 자애로워야 하고 임금은 어질어야 하고 신하는 공경해야 하는 '당연'도 인심의 '저절로 그런' 것에서 우러나와 그만둘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치의 영역에 속한 인간의 도리도 기의 자연으로 보았다. 쉽게 말하면 이전 성리학에서 다루던 모든 덕목과 가치를 기의 영역으로 옮겨 재구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그의 철학에서 두 가지 논쟁거리가 발생한다. 하나는 가치와 존재의 영역을 과연 하나로 묶어 논의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그는 자연과 당연을 구별해도 그것을 모두 기의 일로 봄으로써 존재 상에서 구별하지 않았다. 가치는 인간의 가치 의식의 소산으로 인도의 영역이지 천도의 영역을 아니다. 다만 인도가 천도를 근거로 삼을 수는 있지만 인도와 천도를 등치 할 수 없다. 그래서 후대 최한기가 자연과 당연을 천도와 인도로 구분한 것과는 확실히 다르다. 이것은 아마도 맹자 이후의 성선설을 따랐기에 인심의 자연스러운 발로가 곧장 당위의 표현이기 때문에 양명학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인심이 선한지 악한지는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문제는 리의 독립성을 부정해도, 리가 갖는 내용은 전혀 손상이 없다. 그는 이전의 이일분수(理一分殊)를 기일분수(氣一分殊)로 바꾸어 설명했는데, 기존의 가치와 논리를 다 인정한다면 그것을 그의 기 철학 체계 안에서 설명해 낼 수 있어야 한다. 가령 인의예지라는 덕목을 인간의 본성으로서 기의 자연성에 갖추고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인간의 본성으로 자리매김하고 발현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설령 인간이 행위나 감정을 통해서 그것을 구현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가 인간의 자연성인지 아니면 그 자연성이 사회적 규범과 조화를 이룬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다. 모든 인간 모든 문화권에서 인의예지를 똑같이 본성으로 여기지

는 않기 때문이다. 비록 유사한 무엇이 있을지라도.

선배 학문에 의문을 품다

자신의 철학을 확립한 중년 이후에 임성주는 그 기준에서 선배들과 동료들의 견해를 대한다. 좋다고 따르기도 하고 미심쩍은 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후자의 경우 그는 율곡의 이통기국(理通氣局)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율곡 선생이 일찍이 말하기를 ‘담일(湛一)하고 청허(淸虛)한 기는 존재하지 않는 곳이 많다.’라고 하였는데,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 듯싶다. 비록 치우치고 막히고 나쁘고 탁한 곳이라 할지라도 이 기는 뚫고 들어가지 않음이 없는데, 다만 형기(形氣)에 국한되고 막혀서 노출하여 뚜렷이 행해지지 못할 따름이다. … 담일(湛一)하고 청허(淸虛)한 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천(天)이니, 천이 어찌 있지 않은 데가 있겠는가. 율곡의 설은 아무래도 의심스러운 느낌이 든다(「이기심성(理氣心性)」).”

라고 하여, 기는 맑아 어디든 통하는데 율곡의 이통기국(理通氣局)에서 기에 의하여 국한된다는 기국의 견해와 다름을 표시하였다. 그래서 율곡이 “아무래도 리와 기를 두 개의 물건으로 보았다는 혐의를 면치 못할 터인데, 어쩌면 이 문제에 대해서 미처 집중하여 사색할 겨를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다(같은 책).”라고 하였다.

또 김창흡(金昌翕, 1653~1722)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판하였다.

“김삼연(金三淵: 昌翕의 호)이 사람과 동물의 본성과 도에 대한 질문을 받고서 ‘본체는 온전해도 작용이 미달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대답한 그 말이 매우 통쾌해서 언뜻 보면 기뻐할 만한 대답 같으나, 자세히 일의 이치에 따라 추리해 보면 그 말에 허술한 점이 많이 보인다(같은 책).”

곧 이 말은 꿀벌과 개미의 군신 관계와 같은 것은 부분적으로 적용해 말할 수 있지만, 모든 동물에게 사람과 같은 본성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임성주의 반론이다. 아마도 김창흡은 인물성동론의 취지로 말했지만, 저자는 인간과 동물의 본성이 같지 않다고 하여 낙론(洛論)을 따르지 않고 호론(湖論)을 지지하는 일처럼 보인다. 이것은 임성주가 중년 이후 인물성동이논쟁에서 인물성동론을 주장했던 외암 이간(李柬, 1677~1727)의 심론(心論)은 문제가 없지만, 성론(性論)은 합당치 않다고 보고, 자신의 이론을 수정하였다는 학계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다.